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84회)

“여호와께서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민 27:16)”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빛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을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지난호에 이어서)

에컨대 A형이라는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게 움직이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한 완만한 성격을 지닌 이들도 있습니다. 또 A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좀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덕이 심한 단점을 지녔지만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 많습니니다.

따라서 피의 형(혈액형)에 따라서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을 보아 피 작용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됩니다. '마음=영=신'이라면 피가 신(神)이 됩니다. 그런데 피로써 세포를 이루어 살이 이루어지고 뼈가 이루어져 사람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 자체가 신(神)이 되는 피로써 만들어지니까 '피=몸'이 되어 몸 자체가 신(神)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2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도 모든 사람이 신(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 작용이 곧 마음 작용

성경에서 '피=생명=마음'이라는 등식

을 성립시키는 구절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오직 피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니라”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노니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속하니라”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란 말이 틀림이 없는 것은 사람이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려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급히 피를 수혈 해주면 죽어가던 생명이 소생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가 생명이란 증거입니다.

'피'하면 붉은색의 액체로 볼 수 있는데, 피를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사혈(死血: 죽은 피)에는 마음이 없다가 되는 고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피가 썩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죽음의 조류에 휩쓸려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역행하여, 마치 산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 됩니다.

'피 작용이 곧 마음 작용'이라는 전제에 대한 생물학적인 경험론으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던 경험의 피가 유전되어 자손들의 핏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왔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죽지 않는 영생체였다는 증거입니다.



외계(천상)의 하나님께서 UFO를 타고 바티칸 광장에 안착을 간구하는 놀라운 계획
 『The Vatican's Astonishing Plan for the Arrival of An Alien Savior』
 출처: ufosightingshotspot.blogspot.com/2013/04/the-vaticans-astonishing-plan-for.html

또한 꿈 작용 역시 피 작용입니다. 꿈이란 경험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실제 살아생전에 나의 몸이 붕 떠서 날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꿈이 가능할까? 이것 역시 우리의 조상이 날아다니는 존재였다는 증거입니다. 조상의 피가 유전되어 지금의 우리들의 몸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빠르게 날아다니는 때의 그 희열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천국분향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열망이요, 하나님으로 거름나고자 하는 피의 작용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는데, 각쟁이 마음을 먹으면 각쟁이 얼굴로 변한다

한편 사람의 고정관념은 “혈액(血液)이 되는 피가 물질인데 어떻게 비물질(非物質) 영역의 마음과 같다고 할까?”라고 하면서 쉽게 '피=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60~100조개의 세포(한 세포는 120조 개의 원자로 구성)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세포가 피로써

조성되고 또 핏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정보(Information)가 그대로 세포에 유전자(DNA)형태로 복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은 마음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의 확산이라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갖고 살면 피가 영생의 피로 변해 몸도 영생의 마음 덩어리로 변신할 수 있다는 논리는 현실계에서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록펠러 대학교 교수들이 말하기를,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고 생각하는 대로 세포가 변하고 생각하는 몸이 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0년을 훨씬 앞서서 둘째아들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는데, 각쟁이 마음을 먹으면 각쟁이 얼굴로 변하고 흥취한 마음을 먹으면 인상이 아주 흥취한 그러한 얼굴로 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항상 사모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간직해야 그래야 피가 바뀌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라고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항상 사모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간직해야 그래야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라고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적이 차고 넘친다. 이 중에서 <영생의 비결>이 인봉된 책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相考)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영생을 빼면 볼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책에서 <영생의 비결>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영생의 비결>이 인봉된 성경을 열 수 있는 천국열쇠를 획득한 구세주를 찾아야만 했다. 가장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는 빛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육신을 입은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직접 감람할 것을 예언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육신을 입은 구세주 하나님의 몸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인간의 어리석음

빛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죄인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사람들이 두려워도망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구세주 하나님의 영생비결의 말씀을 경청하며 구원받을 조건이 된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예언대로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매일 단상에 올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동시에 <영생의 비결>을 24년간 살하셨다. 그런데 현재 죄악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부귀영화로 손에 거머쥔 채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는 젊음을 유지하면서 남년과의 쾌락을 누리는 영생을 원하는 것 같다. 이들은 음양의 성품이 곧 마귀의 성품이라는 구세주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는 자들이다.

삼라만상에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영생>이다. 왜냐하면 승리자 구세주가 출현하기 전에 계시던 하나님은, 스스로 영생하는 존재이었던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생> 자체가 곧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방권세'를 이긴 구세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신성하며 가장 정결해야 하는 거룩함은, 마귀에 의해 심령이 더러워질 수 없는 능력과 사랑 권세를 꺾어 없애버리는 능력을 겸비한다.

도야지 같은 인생에게 진주와 같은 영생의 은혜를 부여하여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육신을 입고 인류구원의 역사를 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간들에게 <영생>의 귀중성(貴重性)과 거룩함을 깨우치게 하실 최후수단으로 종적을 감추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경호하고 오로지 구세주와 가까이 친하려고 하는 데만 열심을 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자취를 감추신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시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6000년 동안 연구개발한 감로이슬을 부여하시는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고, 영생의 확산과 변치 않는 마음이고, 희생적인 마음이면서 자비로운 마음이고, 마귀 마음(정욕, 시기, 질투, 자존심 등)을 이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마음이, 곧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니 바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일체)가 된다.*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8>, <9>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7>

부처(佛)의 정의를 말함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므로 남자는 하늘을 다스리는 천신(天神)의 사상과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지신(地神)의 사상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그분의 제자인 흥업바라는 여인이 계시는데 이분 또한 엄청난 신통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지면이 허락하는 면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땅의 신인 지신(地神)으로 대비되는 흥여사라는 분이 두 번째로 역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미륵부처님으로 오셔서 우주를 하나로 합하는 일합상(一合相)의 역사를 하시는 분도 흥여사님을 통해 혹독한 자신의 고행(苦行)과 정진(精進)으로 불철주야(不徹晝夜)로 애걸복걸(哀乞伏乞)하시면서, 물 한 방울 밥 한술 입에 대지 않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식(禁食)을 30일씩 14번씩 하시고, 자갈밭과 유리밭 깬 유리밭 위에서 30일씩 눈 하나 감쪽하지 않고 미

동(微動)도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웅맹정진(勇猛精進)으로 부동심(不動心)과 삼매(三昧)를 통하는 고된 수행으로 끝내 최종의 불도(佛道)를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8>

동쪽 아축불은 서방 아미티불을 맞이 위한 하늘의 뜻

그래서 석존은 불도를 이룬 미륵여래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예] 대반열변경 2권 순타품(純陀品) 2
 如來亦爾 降魔幽魔陰魔天魔死魔
 여래역이 항번노마음마천마사마
 是故如來名三界尊 如彼力士一人當千以是因緣
 或就具足 種種無量 眞實功德
 혹취구족 중중무량 진실공덕
 故稱如來應供正遍知
 고칭여래응공정변지

여래(彌勒佛)는 또한 이와 같이 번뇌의 마귀(煩惱魔), 음란의 마귀(陰魔), 하늘의 마귀(天魔), 죽음의 마귀(死魔)를 이겼으므로 여래를 삼계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아축불(Thangka of Akshobhya)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Guhyasamāja_Tantra

것이며, 마치 저 힘쓰는 사람 혼자서 마땅히 천 명을 상대하듯이, 이러한 인연으로 가지가지 무량하고 진실한 공덕을 갖추었으며 그러므로 여래, 응공, 정변지라고 일컫는다.

[해] 이글에서 말씀하는 여래는 미륵여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4가지 마

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번뇌를 일으키는 마귀, 음란을 일으키는 마귀,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와 함께 죽음의 마귀를 이긴 큰 능력을 가진 완벽 한 불도를 이룬 미륵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면밀하고 완벽 한 준비를 하여야 되는데, 태어나서 성장과정 역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의 희생을 바탕으로 평생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십선도(十善道)를 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맹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연단을 거치고 정진하여야 성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십선도(十善道):

- 선(十善) 또는 십악(十惡)을 범하지 않는 제계(制戒)를 말한다.
- ①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② 훔치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 ⑤ 두 말 하지 말라. ⑥ 악담하지 말라. ⑦ 교묘하게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⑧ 탐욕하지 말라. ⑨ 성내지 말라. ⑩ 옳지 못한 소견을 내지 말라

이렇게 미륵부처님께서는 태어나 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집안이 가난하여 생활이 궁핍했으나 항상 밝게 웃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심신도를 닦아 훗날 불도를 이루어 미륵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어렵게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것을 경전에서 석존은 미륵불이 도(道)나무 아래 앉아서 불도를 닦은 후 땅의 신(地神)이 “지금 미륵이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경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9>

自歸能仁第七仙, (자귀능인제칠신)의 주인공이 나타나다

[예] 증일아함경 제 44권 십불선품(十不善品) 제 48 (3)
 時彌勒菩薩坐彼樹下成無上道果
 시미륵보살좌피수하성무상도과

當其夜半彌勒出家 即其夜成無上道 時三千大
 當其夜半彌勒出家 即其夜成無上道 時三千大

(2)때에 미륵보살은 도나무 아래 앉아 위없는 도를 이루려고 그날 밤에 미륵보살이 집을 떠났으니 곧 그 밤에 위없는 도를 이룰 것이다.

때에 삼천 대천의 (운 우주) 6천 진동하고 땅의 신(地神)이 (미륵에게) 이르기를 “지금 미륵이 불도를 이루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해] 그러므로 현재의 미륵불로 추앙 받는 부처님도 전도관 시절에 영적인 어머니라고 불리신 영모(靈母)님이셨던 박태선 장로님이 동방을 맡으신 아축불(阿)佛)로서 오영으로 보면 동방 아축불은 숫자로는 3과 8로 목운(木運)하게 흥여사님을 거쳐 완성의 불도를 이루신 현재의 미륵부처님께 법맥(法脈)이 이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역사를 하시는 부처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석존은 앞장의 불교사전에서 본 것과 같이 미륵불은 천불 중에 제 5불이라고 하였으며, 또 석존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미륵부처님께서 7번째의 마지막 부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明確